

<미술과 건축: 르네상스부터 큐비즘까지 >

남성택(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분리 (Separation)

르네상스 시대 이후 건축으로부터 조각 및 회화가 분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모자이크, 프레스코, 스테인글라스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 표면과 한 몸을 이루었던 그림과 조각들이 비종교적 용도로 제작되고 사유화된다. 그림이 벽을 떠나 액자 속에 담김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건축이 순수 예술과 구분되기 시작하고, 예술이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작품의 관점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서 조명해본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게 된다. 화가/조각가로만 뇌리에 박혀있는 거장들(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은 한편 건축가들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건축이 장인들의 기술적 창조물에서 탈피해 예술적 결과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시대도 르네상스였다는 사실을 환기하자. 이 경우 건축과 예술의 구분은 사실 모호해진다. 학문적 영역의 분화와는 달리, 창작의 영역은 확장되었고 작품들의 통합은 더욱 긴밀해졌으며, 그 경계는 존재하되 그 간의 소통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극단적이고 장식적인 건축 속에서, 건축 공간과 그 속의 회화, 조각들은 재용해 되어 구분 불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뒤를 잇는 현상인 것이 한편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다양한 근대 건축 운동 속에서, 즉 예술 수공예 운동, 아르누보, 독일 공작연맹, 그리고 바우하우스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들은 공간 속에 담기는 각종 비건축 오브제들의 배치와 형태 창조에 관여했다. 건축은 예술과 삶이 결합하는 꽃을 피우는 총체적 예술(Total Art)의 대표 장르로 인식되었다. 또 그 주동자들 다수가 화가 출신인 건축가들이었다. 과연 건축과 예술은 분리되었는가? 아니면 더욱 통합되었는가?

통합 (Convergence)

삼차원의 건축과 이차원의 회화의 이론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시기도 또한 르네상스였다.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부르넬레스키가 창안했다고 흔히 알려졌으며, 이후 서양 회화의 일대 혁명을 이끌게 될 투시도(perspective)는, 단지 이차원적 표면 위에서 삼차원적 허상을 재현시키는 회화의 기술적 수법만은 아니었다.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축하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고 공간적인 척도였다. 건축은 회화 속 투시도를 위한 주요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과정 속의 시뮬레이션 도구이자 창작해야 할 공간적 이상을 제공하며 지배하게 된다.

구성(composition)이론을 정의한 사람도 르네상스의 건축이론가 알베르티였다. 그의 책 '회화'를 통해 등장하며 이후 서양 회화에서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구성은 건축에서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서 계획되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평면/단면/입면에서 각 요소들의 조화와 질서를 전체 속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건축 '구성'의 전통은 20세기까지 지속된다.

20세기 초의 입체주의 이후 건축과 미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 미술에서 투시도의 전통이 파괴되며 새로운 추상 회화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주제'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구성'이 회화의 본질로 남겨지며 강조된다. 새로운 미술의 문제의식은 동시대 근대 건축에서도 공유되고 실험된다. 한 지점에서 정적인 질서와 완결된 - 즉 투시도의 - 닫힌 상자의 건축 공간은 지양되며, 벽의 모서리가 열리고 그 사이를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시공간적 체험이 유도된다. 새로운 '열린' 공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